

# 논술고사는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는가?

## - 고등학교 학생, 교사, 대학 교수의 인식 조사 -

이 원 석(일리노이대학교 연구원)

---

### 《 요 약 》

---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 교사, 대학 교수의 인식을 통해 대학입학 전형요소로서의 논술고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는가를 논의한다. 각 집단의 인식조사를 위해 혼합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양적 자료인 설문지 자료와 질적 자료인 면접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논술고사가 의도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가에 대해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부정적인 데 반해 대학 교수들은 보다 긍정적 견해를 보였다. 특히,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논술고사의 개념 자체보다는 논술고사의 측정도구로서의 문제점, 예를 들어,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 채점상의 어려움, 논술 고사의 출제, 채점에 대한 대학의 배타적 관리 등에 기인하였다.

주제어 : 논술고사, 고등학교 교육과정, 혼합 연구방법

---

## I. 서론

대학 입학 전형제도는 대학의 학생 선발을 위한 프로그램인 동시에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연계하는 교육 시스템으로서 어느 나라에서나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입학 전형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러한 일반적인 역할을 넘어서 사실상 중등교육의 형태와 질을 결정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져 왔으며 이런 이유로 대학 입학 전형제도는 한국 교육 병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면서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로 지목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대학 입학 전형제도에 대하여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아마도 이른바 “논술고사의 본고사 논란”으로 대변되는 대학 입학 전형요소로서의 논술고사의 성격, 개념, 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둘러싼 논쟁일 것이다(김재기, 2007; 박동곤,

2005; 박순영, 1997; 서경호, 1997; 손동현, 2001; 엄영훈, 1997; 신중섭, 2005; 이병민, 2005; 최재훈, 2004).

물론 논술고사가 각 대학이 출제하고 채점하는 서술형 대학별 고사라는 점에서 1969년부터 1980년까지 시행되었던 대입 본고사와 같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논술고사의 본고사 논란”은 무엇을 말하는가? 논술고사를 둘러싼 이 논쟁은 논술고사가 과거 특정 과목에 대한 고난이도의 지식을 요구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지나친 학업 부담과 경쟁, 사교육의 팽창에 따른 중등교육의 왜곡과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본고사와 마찬가지로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특정 영역의 지식을 요구하는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논술고사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논술고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는가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사실상 학생, 학부모들은 논술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논술고사 준비에 있어서 사교육 의존도는 논술고사에 대한 사교육의 실제적인 효과와는 상관없이 어느 특정 과목보다도 높은 것이 대입 전형요소로서의 논술고사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논술고사의 측정 대상, 즉, 논술고사가 대학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논술고사를 둘러싼 논쟁들을 해결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대학 입학 전형 요소로서 보다 타당한 논술고사의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대입 전형요소로서의 논술고사의 도입과 그 쟁점

대입 전형요소로서의 논술고사는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에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할 목적으로 대학이 출제하고 채점하는 서술형 시험을 말한다. 이러한 논술고사가 대학 입학 전형제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86년이다. 1981년부터 도입된 학력고사체제가 객관식 시험만으로는 수험생들의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크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는 1986년 각 대학이 신입생 선발을 위해 논술고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도입된 논술고사는 채점 등 시행상의 문제점과 의도한 시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 등을 이유로 시행 2년 만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폐지된 논술고사는 1994년 수학능력시험의 도입과 함께 각 대학이 대입 전형에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40% 이상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대학별 고사를 허용하면서 국어 시험의 한 부분으로 다시 대입 전형제도에 등장하였다.

이후 정부가 1997년 국공립 대학에서의 논술고사를 제외한 대학별 고사의 금지, 2002년 모든 대학에서의 국어, 영어, 수학을 비롯한 특정 과목에 대한 대학별 고사의 전면 금지를 발표하면서 논술고사는 대학 입학시험에서 각 대학이 출제할 수 있는 대학별 고사의 유일한 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소위 “상위권 대학”들의 내신 점수에 대한 불신, 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에 대한 우려 등과 맞물려 논술고사가 영어 논술, 수학 논술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논술고사의 본고사 논란”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에 교육적,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논술고사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사실상 영어 논술, 수학 논술 등 논란이 된 논술고사 형태를 금지하게 되었고 “상위권 대학”들은 이러한 논란을 피하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합형” 논술고사를 개발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각 대학들의 “노력”은 논란을 진정시키기 보다는 논술고사의 개념 자체에 대한 혼란만을 가중함으로써 교육현장뿐 아니라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대학 입학 전형요소로서의 논술고사의 개념과 그 필요성, 중등교육에의 영향 등에 대해 논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논술고사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다(박동곤, 2005; 서경호, 1997; 손동현, 2001; 신중섭, 2005; 이병민, 2005). 첫째는 논술고사의 측정대상에 대한 것으로 논술고사가 대학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에 중요한 요소인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지, 아니면 특정 영역의 지식이나 또 다른 어떤 것을 측정하는지의 문제이다. 둘째는 논술고사가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준비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논술고사의 사교육 의존도와 직결되며 논술고사의 중등교육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과 대학 교육 접근에의 형평성 논의와 연결된다. 세 번째 쟁점은 논술고사가 대학입학 전형의 한 요소로서 적합한가 여부이며 이는 논술고사의 대학 입학 전형요소로서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이다.

이 세 가지 쟁점들은 분리된 논의가 아니라 서로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특히, 논술고사의 측정 대상 논의는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준비될 수 있는지 여부와 논술고사의 대학 입학 전형요소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이며 초석이라는 점에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논술고사를 둘러싼 논쟁의 해결과 보다 나은 논술고사의 개발을 위해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 2. 논술고사의 측정 대상 논의

대학들은 논술고사가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생들의 종합적 사

고 능력을 측정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종합적 사고 능력은 사교육을 통한 단기간의 훈련을 통해서도 습득되어질 수 없으며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를 배우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논술고사가 대학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한다면 학생들은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이러한 종합적 사고 능력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특별한 훈련은 사실상 필요 없게 된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학생, 학부모들의 심리적 불안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곧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러한 논의는 측정학적으로는 ‘검사 내용에 기초한 타당도 증거(validity evidence based on test content)’에 대한 논의에 해당한다. 검사 내용에 기초한 타당도 증거는 기존의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개념을 타당도에 대한 통합적 관점(unified view on validity)에 입각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Standards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이하 Standards)의 최신판인 1999년 Standards(AERA, APA, & NCME, 1999)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검사의 내용과 측정하려는 구인(construct), 그리고 검사 제작자에 의해 제시된 검사 점수의 해석간의 관계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계의 적절성은 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판단된다(성태제, 2000; 이원석, 2008; AERA, APA, & NCME, 1999). 따라서 논술고사가 실제로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논술고사의 문항 내용, 측정하려는 구인인 종합적 사고 능력, 논술고사 점수의 해석간의 관계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대학 교수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논술고사의 측정대상을 검토하였다. 먼저, 논술고사의 측정대상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논술고사 문제를 분석하기 보다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형 논술고사 유형을 포함하여 현재 대학 입학 전형 요소로 활용되는 논술고사의 일반적 형태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논술고사의 측정대상을 판단하는 전문가 집단에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는 대학 교수뿐 아니라 실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들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논술고사를 실제로 준비하고 치르며 사실상 논술고사의 실제적, 잠재적 문제점들을 감수해야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논술고사의 측정대상에 대한 담론에 포함시킴으로써 논술고사의 측정 대상 고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모형: 혼합 연구방법(Mixed Methods)

대학 입학 논술고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 교사, 대학교수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혼합 연구방법(mixed methods)을 이용하였다. 혼합 연구방법은 하나의 연구에서 양적(quantitative), 질적(qualitative) 연구방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연구 방법들의 여러 관점들을 통해 다른 연구 방법들에 비해 보다 나은 추론(inference)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역동적인 사회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연구 방법으로 최근 인정을 받고 있다(Greene, Benjamin, & Goodyear, 2001; Tashakkori & Teddlie, 2003).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방법으로서 설문지 조사와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면접 조사를 활용하였다.

#### 2. 연구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는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대학 교수이다. 먼저,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를 표집하기 위해 전국의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서울에서 4개, 경기도에서 1개 그 외 지역에서 1개를 선택하였다. 고등학교의 선택은 임의 표출 방식을 사용하였지만 가능한 한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하였다. 각각의 고등학교에서 설문지에 408명의 학생과 147명의 교사가 참여하였으며, 면접은 11명의 학생과 7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또한, 대학 교수의 표집을 위해 서울 소재 A대학을 임의 표출하였으며 A대학의 40명의 교수가 설문지에, 5명의 교수가 면접에 참여하였다.

<표 1> 연구 참가자

연구 참가자 \ 자료 수집	설문지	면접
고등학교 학생	408	11
고등학교 교사	147	7
대학 교수	40	5
합계	595명	23명

설문지에 참여한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배경변인은 <표 2>, <표 3>과 같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1학년과 2학년만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는 고등학교에서 설문지와 면접

조사가 이루어진 2006년 12월 21부터 그 다음해 1월 10일까지 기간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학교에서 만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도 곧 2, 3학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논술고사에 대한 관심과 그 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표 2〉 설문지에 참여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배경 변인 (N=408)

성별			학년				학교 소재			
남	여	무응답	1	2	3	무응답	서울(강남)	서울(비강남)	경기	기타
219	185	4	180	222	0	6	47	179	126	56

〈표 3〉 설문지에 참여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배경 변인 (N=147)

성별			과목				학교 소재			
남	여	무응답	국어	영어	수학	기타	서울(강남)	서울(비강남)	경기	기타
66	80	1	36	25	18	68	7	103	25	12

또한 대학 교수들의 설문지 조사는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에 주로 참여하는 A대학의 문과대학, 정경대학, 사범대학, 이과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 4〉에 의하면 설문에 참여한 교수들 중 약 44%가 논술고사 출제 경험이 있었으며, 약 95%가 채점 경험이 있었다.

〈표 4〉 설문지에 참여한 대학 교수들의 배경 변인 (N=40)

성별		소속 대학				출제 경험					채점 경험				
남	여	문과	정경	사범	이과	0	1회	2-3회	4회 이상	무응답	0	1회	2-3회	4회 이상	무응답
35	5	26	3	10	1	22	5	7	5	1	2	1	16	20	1

면접은 설문지와 마찬가지로 11명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7명의 교사들, 5명의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면접에 참여한 5명의 대학 교수들은 전 입학처장을 비롯하여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의 경험이 많고 대학 입학 전형 제도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 3. 자료 수집

#### 가. 설문지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응답자들의 배경 변인에 대한 질문과 함께 (1) 논술고사가 대학 당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고 보는가? (2)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 있지 못하다면 실제로 무엇을 측정한다고 보는가? 라는 논술고사의 측정대상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응답 대상인 논술고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설문지에 본 설문지에서의 논술고사는 “현재 주요 대학들이 도입하고 있는 이른바 통합형 논술고사를 포함하여 현 대학입학 전형 요소로 활용되는 논술고사를 총칭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응답자들에게 설문지의 논술고사가 어느 특정 대학의 논술고사 유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형 논술고사를 포함하여 2006년 현재 대학입학 전형 요소로서 시행되고 있는 논술고사 전반을 가리킨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 설문지는 앞서 언급한 6개의 일반 고등학교와 A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배포, 수집하였다.

#### 나. 면접

면접은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즉, 면접을 통해 대입 논술고사가 실제로 대학 당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피면접자들의 견해와 그 이유를 각각도에서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와 마찬가지로 피면접자들에게 조사 대상인 논술고사는 통합형 논술고사를 포함하여 2006년 현재 대학 입학 전형 요소로서 시행되고 있는 논술고사 전반을 가리킨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모든 면접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설문지 자료와 면접 자료는 혼합 연구방법(Mixed Methods)의 자료 분석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Onwuegbuzie 와 Teddlie(2003)가 정리한 혼합 연구방법의 자료 분석 과정 중 자료 정리(data reduction), 자료 표시(data display), 자료 변형(data transformation), 자료 비교(data comparison), 자료 통합(data integration)의 과정을 통해 설문지 자료와 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자료 정리, 표시 단계로 설문지 자료는 Likert척도를 활용한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 분석을 통해 정리되고 ‘표(tables)’로 표시되었다. 또한, 집단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분석하기 위해 ANOVA post-hoc test를 실시하였다. Post-hoc test는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 크기

가 다를 경우에 유용한 Games-Howell 방식을 이용하였다(Field, 2005). 면접 자료는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정리되고 ‘요약(summaries)’과 ‘인용(quotes)’으로 표시되었다.

자료 변형 단계에서는 표와 숫자로 표시된 설문지 자료를 질적(qualitative) 형태로 변형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면접 자료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만약 면접 자료를 양적(quantitative) 형태로 변형할 경우 면접 자료의 생생하고 심층적인 특성이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단계로, 논술고사 측정대상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변형된 설문지 자료와 면접 자료를 비교하였고, 마지막으로, 앞서 분석 단계들을 통해 얻어진 모든 결과들을 통합함으로써 논술고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하에서는 연구 결과를 자료 분석의 다섯 단계에 따라 제시한다.

## IV. 연구 결과

### 1. 자료 정리, 표시 단계

#### 가. 설문지

첫째, 논술고사가 대학 당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대학 교수의 견해는 <표 5>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논술고사의 종합적 사고 능력 측정 여부에 대해 고등학교 학생, 교사, 대학 교수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이들 집단 간 인식 차이는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5>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견해

	고등학교 학생	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평균	2.91	3.19	3.78
표준편차	1.06	1.02	0.70

참고) 1=절대로 아니다; 2=아닐 것이다; 3=중립적이다; 4=그럴 것이다; 5=확실히 그렇다



〈표 6〉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집단간 견해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 (Games-Howell Procedure)

(I) 집단	(J) 집단	평균 차 (I-J)	표준오차	Sig.
고등학교 학생	고등학교 교사	-0.279*	0.099	0.042
	대학 교수	-0.863*	0.122	0.000
고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학생	0.279*	0.099	0.042
	대학 교수	-0.585*	0.139	0.001
대학 교수	고등학교 학생	0.863*	0.122	0.000
	고등학교 교사	0.585*	0.139	0.001

참고) \*p < .05

둘째,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한다고 보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90%, 교사들의 99%, 대학교수들의 94% 정도가 그 이유로 ‘일정한 문제에 대한 논리적 서술 자체가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으며, 10% 정도의 고등학교 학생들과 3%의 대학 교수들이 ‘대학당국의 전문성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이유로는 ‘논술고사의 지문들 간의 공통된 주제를 찾기 때문에’, 또는 ‘출제, 채점하는 교수들의 전문성 때문’ 등을 들었다.

〈표 7〉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가에 찬성한 설문 참가자들이 제시한 이유

	고등학교 학생 (n=213)	고등학교 교사 (n=79)	대학 교수 (n=33)
(1) 대학당국의 전문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8.9%	0%	3.0%
(2) 일정한 문제에 대한 논리적 서술 자체가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므로	89.7%	98.7%	94.0%
(3) 기타	1.4%	1.3%	3.0%

셋째,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지 못한다고 보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67%, 교사들의 56%, 대학 교수들의 50%가 논술고사는 ‘고전, 철학, 시사 등 교과 외적 지식을 측정’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각 집단의 약 20% 정도는 논술고사가 ‘수학, 국어, 영어 등 교과 지식을 측정’한다고 보았다. 기타 응답으로는 ‘글쓰기 능력’, ‘단편적 지식’, ‘배경 지식’, ‘기억력’ 등을 제시하였다.

〈표 8〉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가에  
반대한 설문 참가자들이 제시한 논술고사의 실제 측정 대상

	고등학교 학생 (n=251)	고등학교 교사 (n=72)	대학 교수 (n=6)
(1) 수학, 국어, 영어 등 교과 지식	24.3%	25.0%	16.7%
(2) 고전, 철학, 시사 등 교과 외적 지식	66.5%	55.6%	50.0%
(3) 기타	9.2%	19.4%	33.3%

## 나. 면접

### 1) 고등학교 학생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가에 대해 면접에 응한 11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학생들은 논리적인 글쓰기 자체는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지만, 논술고사는 첫째, 논술고사 제시문의 난이도가 너무 높은 점, 둘째, 객관적이고 타당한 채점의 어려움, 셋째, 논술고사의 제한 시간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술고사의 한계점은 다음에 인용하는 학생들의 말을 통해 보다 잘 알 수 있다. 먼저, 논술 고사 지문의 문제점에 대해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한마디로 플라톤 국가론 읽어 보지도 않았고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고전이라는데....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책의 지문이 제시문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거부감이 들기 시작해요. 솔직히.... 논술 예시 문항 그런 것을 봐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솔직히 우리가 받았던 교육과 너무 차이가 많아서.... 선생님들은 다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초등학교 수학이나 고등학교 수학이나 개념은 그게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판이하게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요.... 현행 방식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논술 고사에 나오는 지문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게 S대 권장 도서 이런 걸 보면 옛날 고전 같은 것 100권씩 나와 있잖아요. 솔직히 논술 출제 위원이라 그래도 그런 것 다 읽은 사람들이 몇몇이나 될지 의문이 가구요, 그런 책 자체가 내신, 수능 준비 등 시간에 치여서 다른 것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 같거든요.

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논술고사의 채점의 문제점이 사실상 논술고사가 종합적 사고 능력 측정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이니까 논술 글 자체는요 자신의 생각이나 통합적인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실시하는 논술의 채점 방식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 채점 방식으로는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시험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수님들은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또 다른 학생은 “논술 문제를 풀기에 주어진 제한 시간 또한 사고 능력을 제한한다고 봅니다. 프랑스에서는 대학 입학을 위한 논술 고사는 1주일에 걸쳐 시험을 본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논술 고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2) 고등학교 교사

논술고사가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가에 대해 면접에 응한 고등학교 교사들은 논술고사가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을 위한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지만 현실에서는 논술고사의 측정 수단으로서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의도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즉, 교사들은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 측정이라는 논술고사의 실시 의도와 현실간의 괴리를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괴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교사들은 대학이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을 배타적으로 주도함으로써 논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목소리는 아래 한 교사의 말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논술 자체가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논술고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현재 논술고사를 대학이 주도하는 것과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안 맞는다는 것에서는 분명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선생님들이 봐도 어렵고 처음 보는 지문이 많은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도전할 만한 과제가 아니라면 평가 도구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들이) 얼마나 실제로 고교 교과서를 들여다보고 출제를 하는지 아니면 그것은 무시하고 우리 학교 수준이면 이정도 문제는 나가야지 생각하고 하는지 그것이 의심이 갈 정도로 지문이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이나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논술고사가 사실상 정형화된 답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논술고사의 의도와 현실간의 괴리가 생기게 되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원래 의도는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려고 도입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 (86년, 87년) 2년간 실시된 논술고사는 창의적인 사고라고 해서 문제는 짧고 그에 대해 다양한 답안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여러 지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서술하는 어쩌면 정형화된 답안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학원이 성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통해 사실상 논술고사의 고득점 여부는 학생들의 창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과 연습의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논술고사의 종합적 사고 능력 측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올해 어느 대학에서는 논술이 당락을 좌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어떻게 논술을 그렇게 잘 썼니?” 물어 봤더니 학원에서 써 본 거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논술이 정말 종합적 사고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얼마나 훈련을 받았느냐, 연습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창의성이 아니라 훈련된 것이지요.

### 3) 대학 교수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가에 대해 대학교수들의 의견은 긍정적, 부정적 두 견해로 양분되었다. 즉, 면접에 참여한 다섯 명의 대학교수 중 세 명은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반면 두 명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교사들에 비해 보다 긍정적이었다.

먼저 아래 인용된 한 교수의 견해는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가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종합적’이란 여러 과목, 또는 주제들을 포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논제에 관하여 긍정적, 부정적 시각 등 여러 시각들을 통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합적 능력은 크게 제시문을 읽고 이해하는 이해력, 논제에 대한 논리력, 자신의 견해를 글로 표현하는 표현력을 포함합니다. 논술고사는 이러한 일정한 논제에 관한 이해력, 논리력, 표현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논술고사는 이를 어느 정도 잘 측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교수는 다음과 같이 종합적 사고 능력의 측정에 있어서 논술고사가 객관식 검사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긍정적 견해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중요한 것은 객관식 검사보다는 종합적 사고력을 잘 측정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건 간에.... 객관식 검사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을 재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하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과거 A대학의 입학관리처장직을 맡았던 한 교수는 “(논술고사가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가에 대해)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 학교는 90%는 넘는다고 봅니다. 기본 틀은 80%는 잡혀있고 그 다음에는 출제하는 사람들의 능력,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라고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다른 교수는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채점상의 어려움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상적인, 프랑스식과 같은 논술고사는 현재 대학입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작년 수시 1의 경우 경쟁률이 40 대 1이었습니다. 교수들이 100 여명 이상이 동원되어서 채점을 했는데....실제로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보고 이런 것들은 한달 정도의 채점 기간을 가지면 모를까, 또 채점이 얼마나 객관적인가의 문제도 있고 해서....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규격화된 형태로 출제, 채점이 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종합적 사고력도 채점의 일부이므로 전혀 측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교수는 논술 고사 점수에서의 혼란 효과를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서술형은 자기 생각을 드러내서 답안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즉, 자기가 가진 여러 생각들을 종합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종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하지만 연습을 해서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종합적 사고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냐고 볼 때는 개인에 따라서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논술고사가 의도한 바대로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인 논술고사 제시문의 난이도에 대해서 대학 교수들은 다른 견해를 보였다. 다음의 두 교수의 의견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시문 5개 중에 1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시문을 줍니다. 지난 번에는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른 제시문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시문 자체 때문에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이해력입니다. 이러한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제시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논술고사가 입학시험의 하나인 만큼 경쟁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어느 정도 어렵게 내어야 학생들의 능력을 변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시문은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형으로 가면서 수리적 사고와 결합시킬 수 있는 주제들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글들은 빠지게 되면서 제시문들의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 2. 자료 변형

자료 변형 단계에서는 앞서 표로 제시된 설문지 자료의 기술적 통계치를 다음과 같이 서술적 형태로 변형하였다. 즉, 고등학교 학생들은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교사들은 중립적 입장, 대학 교

수들은 상당히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긍정적 입장을 보인 학생, 교사, 대학 교수들의 대부분은 그 이유에 대해 일정한 문제에 대한 논리적 서술 자체가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부정적 입장을 보인 학생, 교사, 대학 교수들의 과반수 이상은 논술고사는 사실상 고전, 철학, 시사 등 교과 외적 지식을 측정한다고 보았다. 그 밖의 응답으로는 수학, 국어, 영어 등 교과 지식, 글쓰기 능력, 단편적 지식, 배경 지식, 기억력 등을 제시하였다.

### 3. 자료 비교

변형된 설문지 자료와 면접 자료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은 없었으며 사실상 면접 자료의 분석 결과가 설문지 자료의 분석 결과의 논거를 제시하거나 그 내용을 보다 상세화함으로써 설문지 자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첫째, 설문지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은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런데 면접 자료를 통해 이러한 학생들의 부정적 견해는 논리적 글쓰기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논술고사의 시험으로서의 특성, 예를 들면, 지나치게 어려운 제시문, 채점의 어려움, 시간 제한의 문제 등에 근거를 둔다는 것을 알았다.

둘째, 설문지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은 논술고사의 종합적 사고 능력 측정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면접에 응한 교사들은 논술고사의 의도와 현실간의 괴리를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 상반된 결과라기보다는 면접을 통해 특정 문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설문지 자료를 통해 교수들은 논술고사의 종합적 사고 능력 측정 여부에 대해 학생, 교사와는 달리 긍정적 견해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면접 자료는 이러한 견해 차이가 주로 논술고사의 제시문의 난이도와 고등학교 교육의 현실에 대한 인식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4. 자료 통합

지금까지 혼합 연구방법의 자료 분석 과정 중 자료 정리(data reduction), 자료 표시(data display), 자료 변형(data transformation), 자료 비교(data comparison)에 의한 설문지와 면접 자료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각각의 분석 결과는 물론 그 자체로서도 연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자료 통합(data integration) 과정을 통해 논술고사의 측정 대상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 교사, 대학교수의 인식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로 통합되었다.

## 가. 고등학교 학생의 인식

고등학교 학생들은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지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들은 논리적 글쓰기 자체가 종합적 사고력을 보여준다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논술고사의 시행상의 문제점, 즉, 제시문의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 채점상의 어려움, 논술고사의 제한 시간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학생들의 논술고사의 종합적 사고력 측정은 매우 어렵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논술고사가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사실상 특정한 지식을 측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들은 논술고사가 측정하는 특정한 지식으로서 고전, 철학, 시사 등 교과 외적 지식을 가장 많이 지목하였으며 이밖에도 수학, 국어, 영어 등 교과 지식이나 배경 지식, 기억력 등을 열거하였다.

## 나.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고등학교 교사의 논술고사의 측정 대상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식과 비슷하다. 물론 설문지 자료에 의하면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가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보였지만 이에 대한 심층적 면접 자료에 따르면 보다 부정적 견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었다. 특히, 교사들은 논술고사의 의도와 현실과의 괴리를 이유로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았다. 이 또한 학생들의 견해와 유사한 것이며 교사들은 논술고사의 의도와 현실간의 괴리를 가져오는 요인으로서 논술고사 시행에 있어서의 대학의 배타적 관리, 논술고사의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 논술고사의 정형화된 답안 등을 지적하였다. 이런 이유로 고등학교 교사들은 논술고사는 사실상 특정한 지식을 측정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보였으며 그 예로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고전, 철학, 시사 등 교과 외적 지식을 가장 많이 들었다.

## 다. 대학교수의 인식

대학교수들은 비교적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 논거로서 대학교수들은 주로 논리적인 글쓰기 또는 서술형 시험에의 답변 자체가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들었다. 즉, 대학교수는 고등학교 학생이나 교사가 지적하는 논술고사의 측정 수단으로서의 한계보다는 논술고사의 의도하는 바, 다시 말해, 논리적인 글쓰기, 서술형 시험의 장점 등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바라보았다.

## V. 결론 및 합의

지금까지 논술고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가를 고등학교 학생, 교사, 대학교수의 인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논술고사의 측정 대상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논술고사의 본고사 논란”으로 대변되는 논술고사를 둘러싼 논쟁들의 해결을 위한 초석의 역할을 할 것이다. 앞서 논한 각 집단의 인식 분석 결과 자체도 이러한 논쟁의 해결을 위해 그 시사하는 바가 크겠지만 여기서는 전체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가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논술고사가 무엇을 측정하는가에 대해 실제로 논술고사를 준비하고 치르는 고등학교 학생, 교사 집단과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는 대학 교수 집단간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한 것은 앞으로 타당한 논술고사의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인식 차의 원인이 논술고사의 개념 자체보다는 논술고사의 측정도구로서의 한계에 있다는 점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물론 학생들의 인식이 논술고사의 측정 대상의 논의를 위한 전문가적 의견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생들이 논술고사의 실제적, 잠재적 문제점들을 사실상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대학 당국은 논술고사가 의도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논술고사 출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비록 아무리 논술고사의 문제가 측정 이론상 그 자체로는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 당국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논술고사 출제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간의 논술고사 측정대상에 대한 인식차이는 논술고사의 내용에 기초한 타당도 증거(validity evidence based on test content)에 있어서 누가 전문가인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논술고사의 측정 대상에 대해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간에 인식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 즉, 논술고사 제시문의 난이도 수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와 논술고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반영에 있어서의 시각차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술고사에 있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반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 등에서 고등학교 교사의 전문성이 무시되어 왔던 점은 타당한 논술고사의 개발을 위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면접에 참여한 한 학생의 말을 소개함으로써 대학, 정부를 포함한 우리 교육



공동체가 바람직한 논술고사 아니, 바람직한 대학 입학 전형제도의 정착을 위해 나아가야 할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술고사의) 의도는 좋다고 하는데 대학교의 특성이 뭐냐면 창의적이거나 머리 좋은 학생들은 뽑아 놓고 그 다음에 대학교가 그 학생들을 진짜 창의적으로 (어떻게) 더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약간 덜 창의적이더라도 성실한 학생들을 창의적으로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의도는 좋은데 그 다음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거죠.

## 참 고 문 헌

- 김재기(2007). 논술고사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10(2), 125-144.
- 박동곤(2005). 본고사형 논술은 ‘오발탄’. **Next**, 23, 108-115.
- 박순영(1997). 대입 논술 고사의 방향은 어디로. **철학과 현실**, 35, 83-88.
- 서경호(1997). 논술고사-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교육연구정보**, 30, 13-20.
- 성태제(2000). 타당도에 대한 개념, 정의, 검증 방법의 변화와 교육적 함의. **교육평가연구**, 13(2), 1-11.
- 손동현(2001). 논술고사, 학력고사의 잔재인가? 지성교육의 활로인가? **교육개발**, 125, 96-99.
- 신중섭(2005). 논술 고사와 대학의 자유. **철학과 현실**, 66, 116-121.
- 엄영훈(1997). 논술 고사의 문제와 개선책. **교육연구정보**, 30, 21-28.
- 이병민(2005). 논술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논술시험의 사회문화적 고찰. **교육비평**, 19, 81-107.
- 이원석(2008). 타당도에 대한 통합적 관점. **교육평가연구**, 21(4), 67-79.
- 최재훈(2004). 논술 및 면접: 현황과 문제 진단. **공학교육**, 11(4), 12-15.
-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 in Education. (1999). *Standards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ield, A. (2005).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SPSS* (2nd ed.). London: Sage.
- Greene, J. C., Benjamin, L., & Goodyear, L. (2001). The merits of mixing methods in evaluation. *Evaluation*, 7(1), 25-44.
- Onwuegbuzie, A. J., & Teddlie, C. (2003). A framework for analyzing data in mixed methods research. In A. Tashakkori & C. Teddlie (Eds.), *Handbook of Mixed Methods in Social & Behavioral Research* (pp. 351-383). Thousand Oaks, CA: Sage.
- Tashakkori, A. & Teddlie, C. (2003). *Handbook of Mixed Methods in Social & Behavioral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논문 접수 : 2009년 5월 1일 / 수정본 접수 : 2009년 6월 4일 / 게재 승인 : 2009년 6월 17일

## **ABSTRACT**

### **What Does the Essay Test Actually Assess?**

- Through the Perceptions of High School Students, Teachers, and  
Faculty Members -

Wonsuk Lee

(Research Associat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This article illuminates what the essay test as a college admissions screening factor actually assesses according to the perceptions of high school students, teachers, and faculty member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the groups the mixed methods approach was applied. That is, surveys as quantitative data and interviews as qualitative data were us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high school students and teachers had relatively negative positions, but faculty members had positive positions on whether the essay test assesses students' comprehensive thinking. Especially, the gap of the perceptions wa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essay test as an assessment tool. Also,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reflect the high school curriculum when making up the essay test in order to assess students' comprehensive thinking.

Key words : the essay test, high school curriculum, mixed methods